

특별기획

익산시-한국농어촌공사 합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일환

문화센터 '합라 두레마당' 준공

군산고용노동청, 고용질서 일제 점검

군산고용노동청(지청장 김정수)은 이날 15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2개월간 PC방, 카페, 주점·호프, 숙박 등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을 벌인다.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사례가 많은 5인 이하 사업장과 취약연령대 다수고용 사업장 유증·오락부문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단, 소규모 취약업종임을 감안해 점검에 앞서 사전안내 등 계도를 병행 실시키로 했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가 합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합라문화센터 '합라 두레마당'의 준공식이 지난 15일 익산시 합라로 275일원에서 개최됐다. 준공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이춘석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정현을 시장은 이날 권역추진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합라권역(합라두레마당)이 전국 으뜸권역이 되어 익산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등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문화센터인 합라 두레마당은 부지면적 8,673㎡, 건축연면적 851㎡로 1층은 사무실, 헬스장, 다목적실, 화장실, 2층은 복합 문화공간, 취미실 등을 갖춘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운동은 물론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며 일상을 활기차게 가꿔갈 수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 익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상생식 사업이다. 2011년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국비와

지방비 총7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됐으며, 합라문화센터, 농산물저온저장 시설, 농산물가공·저장시설, 소공원, 경관정비, 지역주민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권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민의 농촌유일 유도와 농촌가꾸자의 이촌유치,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사회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합라권역이 잘 운영되어 타 권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원광대 '특수교육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기판' 선정

교과서·지도서·전자도서 개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특수교육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기판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으로 부터 약 2억 6,000만 원의 용역비를 지원받는 원광대는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국어과(초등 3~4학년 군) 교과서와 지도서 및 전자도서를 개발한다.

이번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은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강경숙(사) 교수와 전국의 관련학과 교수, 장학사, 교감(감), 현장교사 등 30명으로 팀을 꾸려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연구·집필 책임자로 선정됐으며, 원광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위원으로

로 내년 11월까지 활동한다.

특히 지난 2013~2014년 특수교육 국어과(5~6학년 군) 교과서와 보완자료 개발 사업으로도 용역비를 수주한 강경숙 교수는 지금까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교과서 집필 역량을 인정받았다.

강경숙 교수는 2007년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초대 교수로 임용됐으며, 국제이동구조기관(NPO) 국제결연 담당자, 국립학교 교사, 교육부 공채 전문직 등 다양한 경력을 거쳐 2013년 동아일보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학계 영향력학자 교육학 분야 11위에 오르기도, 2015년 세계인명사전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기도 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소방서, 기초소방시설 기증 창구 인증 운영

군산소방서(서장 박진선)는 기초소방시설의 설치 확산 및 보급을 위해 기초소방시설 기증 창구를 인증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증 창구 인증 운영은 2017년 2월까지 인증 운영되며 기초소방시설은 도내 기관·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 기증 창구 인증은 전복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증 받으며 화재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가정에 보급 설치된다. 기증 받은 소방시설은 기증자 이름으로 소방관이 직접 기초생활수급가정에 설치하고 사용 및 관리요령, 화재시 초기 대응방법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 농기센터, 농기계 현장 이용교육 '호응'

초보 귀농·귀촌인 대상 기초이론·운전 실습 등 10시간 과정 운영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농기계 현장 이용교육이 초보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군산시는 개정면(본소), 임피면(동부), 옥서면(서부) 등 3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한 초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고 영농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절차, 농기계 종류와 사용방법 등에 대한 초보농업인 농기계 현장이용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한 신규 농업인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기계

기초이론과 소형농기계 운전 실습교육 등 총 1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기초이론부터 운전실습까지 맞춤형 현장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 첫날인 14일에는 한국농수산대학 김동영 교수의 농기계 작동원리와 안전에 관한 이론 특강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 실습장에서 트랙터 관리기 등 농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실습교육이 이뤄졌다.

15일에는 다양한 농기계 종류와 기능에 관한 정보제공과 농기계 조립과정을 직접보고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농기계 생산 공장 견학 등 현장감 있는 교육내용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시는 농업분야에서 여성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 중심의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공급을 확대해 파종·이식, 수확 단계의 기계화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성농업인과 귀농·귀촌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임대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현장이용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안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BUY가맹점 협정체결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문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박물관 BUY가맹점과 협정서 체결 및 간담회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물관 BUY가맹점 제도에 참여중인 68개 업체가 참여했다.

BUY가맹점 제도는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며 박물관을 다녀간 방문객이 관람권을 제출할 시 가맹점 등록업체에서 판매금액(현금10%, 카드7%)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모집대상은 군산시 소재 사업자등록

을 위한 요식업체에 한정되며 가맹기간은 1년으로 희망자에 한해 매년 재접수할 계획이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지난해 8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올해도 월 평균 6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어 군산 원도심 활성화와 근대문화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작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전국 5대박물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박물관 인근의 7개 건물에 테마단지화 되면서 전국적인 가족단위 체험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 평생학습 강사연수 4월 27일까지 수강생 모집

익산시가 18일부터 27일까지 평생교육 강사 및 예비강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강사연수' 수강생을 모집한다.

'평생학습 강사연수'는 평생학습시대의 평생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 사회 강사의 자질을 높여 전문성 함양을 통해 시민에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익산시평생학습센터(부송도서관 세미나실)에서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4회간 강의 기회와 교수 전담이라는 큰 주제 아래 강의기획과 강의계획서 작성법, 창의적 강의 기법과 효과적인 교수전략 등을 심층적으로 진행한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 '국민안전의 날' 맞아 재해예방 특별안전점검

군산시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맞아 지난 15일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날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한 군산시 간부공무원 일행은 내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자연마당조성현장 군장대교 개설 현장, 해방굴 등을 직접 방문해 공사현장과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건설시공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를 당부하며 현장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와 경주 리프트 체육관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사고는 부실한 안전점검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한 군산시 간부공무원 일행은 내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자연마당조성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공사현장과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과 안전의식 미흡, 비정상적 관행으로 인해 인제(人災)로 철저히 안전점검과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 향상을 통해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학교 밖 청소년 금연 지원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전북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흡연을 감소와 금연 지원을 위하여 전북권 청소년금연상담사업의 1대 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원광대병원이 운영 중인 전북권지역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기관협의체 중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푸른청소년상담센터와 금연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각 기관 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북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흡연을 감소와 금연활동지원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또한 흡연비율이 높은 지역 내 변화가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거리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전북권지역원센터의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계획하고 있다.

전북권지역원센터에서는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기관을 방문, 사회적 편견 때문에 금연지원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한 학교 밖 청소년 흡연자에게 정기적인 금연상담과 전문 청소년금연상담사와의 1대 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금연지원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대학생 분과장 박민희 교수는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금연상담뿐만이 아닌 종합적인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노력할 것이다. 건강 외에도 복합적으로 많은 문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역 내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효과적인 금연상담과, 금연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라"를 사용해야 하는가

- 싱크대 배수통의 오랜 찌든때와 막힘
-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식물과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속속 하고 싶다면
-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

"씨서라" 쉽게 설치!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